

# 《우리의 문화, 우리의 멋이 제일이다》

◎ 성황을 이룬 《여성옷전시회-2022》



인민들에게 세상에서 제일 아름답고 행복한 생활을 마련해 주려는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의 은정속에 얼마전 평양의 3대혁명전시관에서 《여성옷전시회-2022》가 진행되었다. 전국의 옷생산단위들, 각지 양복점들을 포함한 540여개의 피복생산단위들이 참가한 전시회는 매일과 같이 수많은 관람객들로 흥성이었다. 계절에 따라 나이와 몸매, 기호에 맞게 시대적미감과 민족적인 형식을 배합하면서도 우아한 세련미를 살려주는 밝고 부드러운 색깔의 달린옷, 양복, 외투 등 다양한 계절옷들은 관람객들의 이목을 집중시켰다. 전시회장을 딱 채우다싶이 한 옷제품들은 그 형태와 색깔, 재질 등 개성이 뚜렷한 것으로 하여 나날이 발전하는 공화국여성들의 옷차림문화의 면모를 잘 보여주었다.

중구역 류성동에서 사는 김영희씨는 《소문을 듣고 전시회장에 달려왔는데 감탄할 뿐입니다. 옷제품이 수천가지나 되는데 모양도 색깔도 각이하니 어느 옷을 골라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우리의 문화, 우리의 멋이 제일입니다.》라고 자기의 심정을 터놓았다. 여성들의 고상하고 아름다운 감정에서 오는 각종 형태와 색깔의 계절옷을 출품한 은하무역과 봉화무역, 료라도무역의 전시대는 류달리 많은 관람객들로 붐비었다. 료라도무역의 한 일꾼은 《이번 전시회에 우아한 색깔과 형태의 계절옷에 소나무, 울밀대과 같은 민족적색채가 짙은 풍경을 화법으로 처리함으로써 우리 식의 독특하고도 새로운 양상의 옷제품들을 출품하였는데 이런 옷제품들이 우리의 거리를 아름답게 단장하게 될것입니다.》라고 말했다.

특히 국내에서 짠 천으로 만든 옷제품에 대한 호평이 자자했다. 경공업성전시대를 찾은 관람객들은 다종다양한 계절옷, 실내옷 등 피복제품들이 국내에서 짠 천으로 만들었다는 사실에 경탄을 금치 못하였다. 색깔이 밝고 형태가 새로우며 질이 좋으니 그럴만도 했다. 김정숙평양직공장에서 만든 다양한 제품들과 견직공장에서 비단천으로 만든 갖가지 형태의 실내옷들을 놓고 관람객들은 우리가 짠 천으로 만드니 정말 좋다고 이구동성으로 말했다. 전시회에는 여성들의 아름다움을 한껏 돋구어주는 새로운 화장품들도 출품되었다. 평양화장품공장과 신의주화장품공장, 평양향료공장에서 여러가지 화장품들과 향기유한 천연향료제품들을 내놓았는데 인기가 높았다. 창령화장품생산소에서 출품한 로화방지젤, 로화방지

살결물들도 중년여성들의 커다란 관심을 모았다. 이 제품이 개발된지는 얼마 안되지만 제품에 대한 관람객들의 수요는 이만저만이 아니었다. 《전시회장이 하나의 큰 경험교화판마당이고 기술교류공간이다.》, 《여성옷의 발전추세와 현대적미감에 맞는 우리 식의 옷차림을 적극 보급하며 심신적인 옷설계와 가공기술을 서로 공유하고 교류하니 정말 좋다.》... 이런 목소리들은 전시회장이 어디서나 울리었다. 하루에도 수많은 피복전문가들이 찾아온 옷도안자로 북구구역은 흥성이는 전시회장의 분위기를 더한층 고조시켰다. 특별히 이채를 띤것은 중강현실거울에서 다양한 옷형태와 함께 가방, 신발과 여러가지 기호품들의 조화로운 완성이 실감할수 있는 가상현실공간을 제공하는 중

강현실거울앞에서 사람들은 옷을 직접 입어보지 않고도 짧은 시간에 자기의 몸매와 취미에 맞는 형태와 색깔의 옷을 골라 《입어볼수》 있었다. 해산시 해명양복점 책임자는 《모든 전시대들을 돌아보면서 우수한 옷제품들을 출품한 단위들의 경험을 확실하게 배웠습니다. 특히 평양시에서 내놓은 옷제품들이 편리성과 미학성에서 배울 점이 많았습니다.》라고 하면서 앞선 단위들을 따라야할 결의를 피력하였다. 전국의 피복생산단위들이 참가한 이번 전시회는 여성옷의 발전추세와 현대적미감에 맞는 옷차림을 적극 장려하고 보급하며 심신적인 옷설계와 가공기술을 서로 공유하고 교류하여 나라의 피복공업을 가일층 발전시키는데서 중요한 계기로 되었다. 본사기자 홍범식



## 활발히 진행된 과학기술발표회

—앞선 기습, 성과를 토의일반화—

**의료기구부분** 전국의의료기구부분 과학기술발표회가 조선과학기술총련맹 중앙위원회 조선의료기구협회의 주최로 진행되었다. 《의료기구의 국산화, 현대화》라는 주제로 열린 이번 발표회는 의료기구의 국산화, 현대화를 실현하며 현존의 의료기구의 믿음성과 안정성, 리용의 편리성을 보장하는데서 이룩된 성과와 경험을 널리 보급일반화하는데 목적을 두었다. 비상방역부분, 의료기구부분, 의료용품부분으로 나뉘어 진행된 과학기술발표회에는 나라의 방역태세를 튼튼히 다지고 현대적인 의료기구의 개발과 생산, 국산화를 다그치는데 이바지하는 100여건의 가치있는 논문들이 제출되었다. 세포공학, 생물기술 등이 도입된 첨단수준의 의료기구제작에 관한 혁신적이며 기발한 가설 및 착상들도 발표되었다.

**기상 및 해양부분** 전국기상수문 및 해양부분 과학기술발표회, 학술토론회가 조선과학기술총련맹 중앙위원회 조선기상수문학회, 조선해양학회의 공동주최로 진행되었다. 기상분과, 수문분과, 해양분과로 나뉘어 진행된 과학기술발표회에는 김일성종합대학, 기상수문국, 국가과학원 지구환경정보연구소를 비롯한 10여개 단위에서 내놓은 100여건의 논문들이 제출되었다. 폭우, 많은 비 예보경정의 수립, 도플러기상레이더의 개발, 강수세기와 삼두세기를 고려한 강수순살량계산방법의 적용, 가설물자루해안방파제의 설계와 건설 등에서 나서는 과학기술적문제들을 해결한 연구제안들이 우수하게 평가되었다.

**건설부분** 전국건설부분 과학기술발표회가 조선건설국가동맹 중앙위원회의 주최로 백두산건축연구원에서 진행되었다. 《인민의 꿈과 리상을 우리의 과학과 기술로》라는 주제로 진행된 이번 과학기술발표회에는 평양건축대학, 평양도시설계연구소를 비롯한 여러 단위의 일꾼들과 교원, 연구사, 설계원 등이 참가하였다. 발표회에서는 《산악협곡도시의 지대적특성에 맞는 다락식살림집건축계획에 대한 연구》, 《80층초고층살림집의 구조설계에 대하여》, 《위생난방설계에서 건축정보모형화 기술의 적용》 등의 제안들이 실천적의의가 큰것으로 하여 우수한 평가를 받았다. 이 기간 인민사랑의 기념비로 솟아난 송화거리와 지방공업발전의 본보기로 훌륭히 일떠선 강원도 김화군 지방공업공장의 설계경험발표회가 있었다.

**수소에너르기부분** 조선과학기술총련맹 중앙위원회 조선수소에너르기학회의 주최로 전국수소에너르기부분 과학기술발표회가 진행되었다. 이번 과학기술발표회는 수소에너르기리용기술을 개발하는 과정에 이룩한 성과와 경험을 공유, 이전하며 수소에너르기체계의 실용화를 앞당기기 위한 학술적기초를 마련하는데 목적을 두었다. 김일성종합대학, 김책공업종합대학, 국가과학원 수소에너르기연구소를 비롯한 여러 단위의 과학자, 기술자, 연구사, 박사원생, 대학생 등이 참가한 과학기술발표회에서는 현시기 절박한 에너지기문제를 해결하는데 이바지하는 수십건의 논문들이 심의, 발표되었다. 본사기자

### 함께 울고웃으며 사는 화목한 가정

## 사경에 처했던 어린 생명을 위해

어디서나 울리고 누구에게서나 들을수 있다. 환자에 대한 뜨거운 정성! 온 나라 인민이 한가정, 한식물이 되어 서로 돕고 이끌며 화목하게 사는 사회주의대가정, 생사기묘에 처한 환자를 위해 모든것을 다 바치는 공화국의 의료일꾼들의 아름다운 정신세계가 그 부름에 비껴있다. 얼마전 재령광산병원의 앞마당에 많은 의료일꾼들의 열렬한 축하를 받으며 귀여운 아들을 안은 한 여성이 나타났다. 이들을 바래우는 최성철

원장을 비롯한 병원의료일꾼들의 노리에 뜻하지 않은 일로 전신 48%의 2~3도 화상을 당한 4살 난 어린이를 기적적으로 소생시킨 나날들이 주마등처럼 떠올랐다. 화상을 당한 환자의 병세를 생각했던것보다 훨씬 더 심각했다. 시시각각 마지막계선으로 접근하는 생명지표, 화상성소크로 의식을 잃은 환자의 위독한 상태가 병원일꾼들과 의사, 간호원들의 긴장한 눈빛이 그대로 비껴있었다. 즉시에 진행된 협의회는 분

위기는 매우 팽팽하였다. 박순만 외과과장의 절절한 목소리가 울렸다. 《물론 소생의 가능성은 1%도 안됩니다. 그러나 인민을 불가불하면 있을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협의회에 참가한 병원일꾼들의 심정도 그와 같았다. 재령광산병원의 의료일꾼들은 환자가 당한 불행을 자기 친자식, 친혈육이 당하는 고통으로 간주하고 어린 생명의 소생을 위한 치료에 들어갔다.

낮과 밤이 따로 없는 긴장한 시간이 흘렀다. 아직 엄마뱃속에 모르는 애 어린 환자를 놓고 진행하는 치료였기에 그 긴장성과 열도는 상상을 초월하였다. 이들은 기존상식이나 경험을 따지기 전에 참된 의료일꾼의 양심과 보건의료으로서의 본분과 도리에 대해 먼저 생각했다. 어른들도 참기 어려운 화상치료를 이날 애 어린 환자의 고통을 함께 이겨내며 친혈육의 마음으로 기울인 뜨거운 정을 무슨 말로 다 표현할수 있랴. 환자의 나이와 화상당한 부위로 보아 감영될 위험성은 매우 높았지만 의료일꾼들의 높은 의술과 정성으로 하여 화상치료에서 넘지 않은 안될 위험한 고비들은 하나하나 순조롭게 극복되었다. 견디기 힘든 육체적부담을 묵묵히 이겨내면서도 언제나 밝고 명랑한 모습으로 힘과 용기를 북돋아주는 의료일꾼들앞에서 환자의 가족들은 한두번만 눈물을 보이지 않았다. 언제인가 담당간호원이 박순만 외과과장을 찾아왔다. 《파장선생님, 환자가 깨어나서 엄마를 찾을 때면 막 안타깝습니다. 우리가 예의

엄마가 되어줄수는 없을까요?》 처녀간호원의 음성깊은 마음에 파장은 목이 격 메어 아무 말도 할수 없었다. 다음날 의료일꾼들은 갖가지 영양식과 함께 놀이감들을 한아름 안고나오는 박순만 외과과장을 목격하게 되었다. 영문을 몰라하는 의료일꾼들에게 과장은 이렇게 말했다. 《내 이제 품귀해 생각해 보았는데 우리가 치료에만 신경쓰다보니 어린 환자한테 진짜 필요한게 없었다 말이에요.》 환자에게 진짜 필요한것, 그것은 약물이나 의술에 앞서 불보다 뜨거운 친혈육의 정이라는것을 이들은 깨달았다. 이런 그들이었기에 많은 의료일꾼들이 환자를 위해 자기의 모든것을 아낌없이 바쳤던것이다. 퇴원을 앞두고 환자의 어머니는 눈물을 쏟으며 절절히 토로하였다. 《고마운 사회주의보건제도가 있어 친어머니도 출수 없는 새 생명을 우리 아들이 받아안았습니다. 경애하는 총비서동지, 정말 정말 고맙습니다.》 본사기자 김혜성

## 인간의 생명은 의사를 품는다

남조선에서 의사들의 집도하여 사람들의 생명을 롱락하고있다고 한다. 그로 하여 《살인공장》이라는 오명을 쓰고있지만 아무런 처벌도 받지 않고있다고 한다. 이것은 남조선의 보건부분에서 벌어지는 범죄행위의 일단을 불과하다. 남조선의 한 언론은 이렇게 폭로하였다.

《의료사기행위의 또 다른 사각지대는 료양병원이 다. 료양병원은 받는 금액의 귀중한 생명을 놓고 상상 못할 범죄를 저지르고 있다. 단적인 실례가 남조선의 보건부분에서 성행하고있는 《유명수술》이다. 일명 《대리수술》이라고 불리우는 해당 전공의 사가 아닌 다른 전공부문의 의사가 집도하는 의료사기행위를 가리켜 생겨난 말이다. 남조선의 병원들에서는 유명한 의사를 배세고 요란하게 광고하여 환자들을 받아들이고는 실지 수술은 다른 전공부문의 의사나 애당초 자격도 갖추지 못한

사람들이 집도하여 사람들의 생명을 롱락하고있다고 한다. 그로 하여 《살인공장》이라는 오명을 쓰고있지만 아무런 처벌도 받지 않고있다고 한다. 이것은 남조선의 보건부분에서 벌어지는 범죄행위의 일단을 불과하다. 남조선의 한 언론은 이렇게 폭로하였다.

### —남조선에서—



수술실 환자가 의사를 못보게 하라



재령광산병원